



주 제:	“밀과 가라지”	“연중 제 16 주일”	2008년 7월 20일
복음 묵상:	[마태 13,24-43]	[지혜 12,13.16-19]	{로마 8,26-27}

오늘 농민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농부의 모습과 오늘 복음의 ‘가라지의 비유’말씀을 묵상하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살아계신 하느님 아버지는 햇볕이 내리쬐는 무더운 날씨와 비가 오는 악천후 속에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당신의 텃밭을 가꾸고 돌보아 주시는 착한 농부이시다. 착한 농부이신 주님께서서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리신다. 그러나 원수인 악마는 빈틈을 노려 밀밭에 가라지를 뿌린다. 관대하신 하느님께서서는 당장 그 가라지를 뽑지 않으시고 추수 때, 즉 정의로운 심판의 그날까지 기다려 주신다.

우리는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착한 농부이시듯 우리들 또한 착한 신앙인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각박한 사회현실에서 착한 신앙인이 되기란 쉽지 않다. 외부적인 요인도 자리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하고 부정적인 감정들 때문이다. 그래서 착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우리 마음 안에서 은밀하게 자리나고 있는 가라지를 퇴치해야 한다. 우리 마음 안에는 좋은 싫든 간에 선악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즉, 좋은 밀 씨앗과 해악을 주는 가라지가 존재한다. 좋은 밀 씨앗은 좋은 생각, 좋은 기억들을 이끌어 우리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지만, 악한 가라지는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불쾌한 마음이 자리하게 한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가라지를 없애고 싶어도 도저히 어쩔 도리가 없다. 가라지를 없애기 위해선, 심판의 그날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은총의 박사인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가라지 퇴치법’을 전해 준다. “마음을 평온하게 가지려면 불쾌한 기억을 머릿속에 불러들이지 말 것이다. 시궁창이 있는 곳을 피해 가듯이, 불쾌한 기억은 피해야 한다. 기분 나빴던 일을 언제까지나 머릿속에 기억해 두는 것은 가장 나쁘다. 사람은 현재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불쾌하고 슬픈 기억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그러한 기억에서 떠난다면, 오늘 이 하루는 그것대로 즐거울 것이다.” (수원 박석천 신부님 강론 중에서)

1.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지난 주부터 교중 미사후 부족한 연습시간을 충당하기 위하여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30 분간 **오후 연습을 시작**하였습니다. 가능한 대로 빠짐없이 연습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추석에 부를 **극악 미사곡(강수근 신부님)**은 본당 **성가대 연습방**에 올려 놓았으니 참조하시어 연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호삼 프란치스코 형제님**, 조카 결혼식 참석차 LA 로 다니러 가셨습니다. 축하하며 즐거운 여행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 **김 순덕 짜리따스 자매님**의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기도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알림

1. 여러가지 사정으로 **성가대 피정 일자**를 9월 13일(토)로 변경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피정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2. 성가대 피정을 위한 첫번째 모임을 7월 27일 오후 연습후에 가지려 하오니 모든 임원들과 각 파트장님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자라서 이삭이 맺을 때 가라지도 드러났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밭에 뿌리신 것은 좋은 씨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주인의 대답이 '원수가 그랬구나!' 하였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을 뽑아 버릴까요?' 하고 종들이 다시 묻자 주인은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일러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 단으로 묶어 불에 태워 버리게 하고 밀은 내 공간에 거두어 들이게 하겠다' 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겨자씨에 비길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겨자씨를 뿌렸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싹이 트고 자라나면 어느 푸성귀보다도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날아 와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밀가루 서 말 속에 집어 넣었더니 온통 부풀어 올랐다. 하늘 나라는 이런 누룩에 비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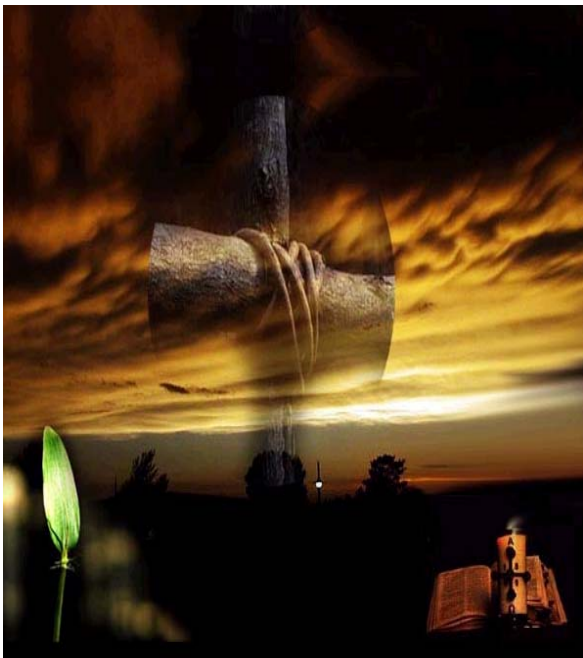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군중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리하여 예언자를 시켜, "내가 말 할 때에는 비유로 말하겠고 천지 창조 때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뒤에 예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들어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그 밀밭의 가라지 비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하늘 나라의 자녀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나는 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추수 때에 가라지를 뽑아서 묶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남을 죄짓게 하는 자들과 악행은 일삼는 자들을 모조리 자기 나라에서 추려내어 불구덩이에 처넣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 할 것이다. 그 때에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1분 명상

♡인간관계 좋아지는 7 가지 방법♡



인간관계 좋아지는 7 가지 방법

1. 웬만하면 동의하라, 논쟁을 피하라
2. 수용해주어라, 미소 짓기
3. 감사하는 마음을 늘 표현하라, '고맙습니다'
4. 인정과 칭찬을 아끼지 마라
5. 찬사를 보내라,
6.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라,
7. 부메랑 원리를 이용하라,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하면
결국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

- 좋은 글 중에서 -